

멕시코 정치와 종교 관계 연구: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사회만남당(PES)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영현**

단독/부산외국어대학교

Jo, Young-Hyun(2020), "Politics and Religion in Mexico: Center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ópez Obrador and PES"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religion, especially between López Obrador and the PES, illustrating the characteristics of evangelical denominations in Mexico. López Obrador is a leftist political leader, and the PES party represents the conservative right-wing male citizen. Therefore, the alliance between both parties surprised the Mexicans. In the 2018 elections, it turned out that evangelicals voted for López Obrador, but not for the PES party. The political orientations of Mexican evangelicals are not yet uniform. López Obrador and the PES selected the immediate benefits instead of their ideology. Unlike other Latin American countries, there is no 'evangelical vote' in Mexico. However, evangelicals are increasingly present in the political arena.

Key Words: López Obrador, The Social Encounter Party, The Evangelical Church, politics and religion, electoral process in 2018

시작하는 말

현재 라틴아메리카 종교지형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현상은 수세기 동안 확고하게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던 가톨릭교회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복음주의 노선의 개신교가 확산중이라는 사실이다.¹ 멕시코도 이점에 있어서는 예외가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2081030).

** Young-Hyun Jo is a professor of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at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latin-jo@bufs.ac.kr).

아니다. 1970년 전체 국민 중 96.2%가 가톨릭 신도였고, 1.8%만이 복음주의 개신교였다.² 그러나 2010년 복음주의 개신교 신도는 7.6%로 증가했다(Garma Navarro 2018, 358-359). 개신교 유입이 비교적 빨랐던 북부와 남동부 지역에 신도들이 많았는데, 주로 원주민, 농민, 이주민 사이에서 개종이 많이 일어났다. 타바스코, 키타나로, 캄페체, 베라크루스 주는 개신교 신도 비율이 12%에서 18% 정도로 비교적 높다. 치아파스 주는 개신교도 비율이 19.2%로 높은 반면, 가톨릭 신도는 58.3%로 가장 낮았다. 아구아스 칼리엔테스, 할리스코, 사카테카스, 케레타로, 과나후아토 등 중서부 지역이 전통적으로 가톨릭 신도 비율이 높다. 특히 과나후아토는 가톨릭 신도가 지역민의 93.8%를 차지했고, 개신교 신도는 2.5% 정도로 미미했다(Ibid).

위의 경우처럼 종교지형의 구성이 변화할 때 동반해서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 바로 정치와 공적 영역에서도 새롭게 부상하는 종교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2018년 복음주의 교회들은 극우 후보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를 지지해서 대신 승리를 이끌어낸 일등공신이었다. 목사 출신 파브리시오 알바라도(Fabrizio Alvarado)는 복음주의 교회의 지지로 2018년 4월 대선에서 2위에 올라 코스타리카의 대통령이 될 뻔했다. 콜롬비아에서도 2016년 10월 마누엘 산토스(Manuel Santos) 대통령이 주도한 평화협정에 대해 반대하며 국민투표에 부결을 이끈 세력 중 하나가 복음주의 교회였다.

1 1910년 라틴아메리카에서 개신교의 비율은 1% 정도에 머물렀고, 1970년대에는 4%로 조금 성장하는데 그쳤다. 그 후 2014년 통계에서는 비약적으로 성장해 19%에 육박했다(Pew Reserch Center 2014, 4). 세부적으로 보면 중미의 엘살바도르(36%), 과테말라(41%), 니카라과(40%), 온두라스(41%)의 경우는 개신교 신도의 숫자가 가톨릭 신도의 숫자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지역이다(Pew Reserch Center 2014, 14). 이 나라들은 이미 가톨릭의 독점적 지위가 상실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2 가톨릭에서 분리된 개신교는 신학적 혹은 정치적 이유로 다양한 분파로 나뉘어졌다. 따라서 용어와 개념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간단히 그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16세기 종교개혁과 함께 파생되면서 분화된 루터교, 칼빈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은 역사적 개신교로 불린다. 오순절교는 1906년 미국에서 아프리카계 흑인들의 영향을 받고 태동했다. 성령의 은사와 방언, 치유, 예언의 은사를 강조한다. 신오순절교는 오순절교에 비해 완화된 규율을 따르고, 하느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는 ‘번영의 신학’(teologia de la prosperidad)을 더욱 강조하며, 동시에 거대 교회의 특징을 보이고, 가톨릭, 마리아 영성, 뉴에이지를 거부한다. 흔히 사용하는 복음주의 개신교란 용어는 역사적 개신교, (신)오순절교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쓰인다. 가톨릭교회와의 차별성을 강조할 때 많이 사용하며 다양한 개신교 단체들이 공동으로 모임을 갖거나 집회를 가질 때 다양한 교회들을 통합시키려는 목적으로 자주 이용한다(Garma Navarro 2018, 356-357).

파블로 세만이 주장한 것처럼 전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 복음주의 정체성에 호소하는 정치세력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Pablo Semán 2019, 18).

윤리, 신념, 세계관의 차이는 기존 체제의 가치나 정책과 충돌하거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종교는 정신세계와 정체성의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종교간 대립은 이념 갈등을 증폭시키고 윤리 의식이나 문화를 바꾸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종교지형의 변화는 정치지형의 변화를 동반한다.

멕시코에서도 양상은 다르지만 이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국가재건운동당(MORENA)의 로페스 오브라도르(López Obrador)는 2018년 선거 과정에서 사회만남당(el Partido Encuentro Social)과의 선거연합을 시도했다. 2018년 12월 대통령직에 오른 그는 좌파 노선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음에도 극우 개신교 세력과 손을 잡았다. 당선 후에도 다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복음주의 세력의 정치화를 촉진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는 가톨릭교회의 패권이 오랫동안 유지되던 멕시코 사회에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 이런 변화가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멕시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브라질이나 다른 중미 국가와 달리 멕시코 내 복음주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복음주의 노선의 교회가 공적인 분야나 정치와 관련해서 비중 있게 다루어진 적이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정치와 종교 사이의 관계 문제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장 피에르 바스티앙(Jean-Pierre Bastian)의 연구처럼 개신교의 확산, 섹트라는 측면에서 개신교와 복음주의를 다룬 몇몇 연구가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정치와 복음주의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아니었다. 멕시코의 현재 정치상황과 복음주의를 다룬 연구는 카를로스 가르마 나바로(Carlos Garma Navarro)의 “México: los Nuevos Caminos de los creyentes. Transformaciones en las posiciones políticas de las Iglesias Evangélicas, protestante y Pentecostales”(멕시코: 신도들의 새로운 길. 복음주의 교회, 개신교 그리고 오순절교의 정치적 위상 변화)와 세실리아 델가도 몰리나(Cecilia Delgado-Molina)의 “La irrupción evangélica en México. Entre las iglesias y la política”(멕시코에서 복음주의의 부상. 교회와 정치)가 있다. 전자는 2018년 출간되었고 주로 역사적, 법적 측면에서 정치와 복음주의 교회 문제를 다룬 것이라면, 후자는 2019년 출간된 논문으로 정치무대에서 새로운 담론으로서 무게감을 갖는 복음주의 메시지를 분석한 것이다. 2019년

멕시코 최고의 종교 분석가들인 베르나르도 바랑코와 로베르토 블랑카르테가 출판한 *AMLO y la Religión*(암로와 종교)은 최초로 정치무대에 무게감 있는 배우로 등장한 개신교를 다루고 있는데,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종교 관련 메시지나 복음주의 노선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정치 행보와 사회만남당의 연대로 촉발된 복음주의 교회와 정치라는 주제는 멕시코에서 이제 막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멕시코 정치권력과 종교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며,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복음주의 교회, 특히 사회만남당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전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 복음주의 교회가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측면을 간단히 언급한 후 멕시코 정교분리의 토대가 된 후아레스 주의의 유산과 세속국가 전통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이어서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정치 여정과 사회만남당의 정치 여정을 종교 문제와 연결해서 살펴보면서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사회만남당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며 연구를 마무리할 것이다.

이론적 점검

종교와 사회변화에 대한 연구는 종교사회학 분야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종교사회학의 탄생에 가장 크게 기여한 연구 분야이다. 종교현상과 사회변화에 대한 연구는 신앙체계, 제의, 종교단체의 조직 등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정치 지도자와 종교단체의 관계 등으로 연구 주제를 다양화했다. 전통적으로 마르크스 이론은 종교변화보다 사회변화를 더 중시했고, 사회변화가 종교변화를 초래한다고 보는 입장을 유지했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종교가 사회변화를 촉진하기보다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Oh 1990, 311)는 입장이다. 반면 베버는 종교 내의 변화가 독립변수로 작동하면서 사회변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종교가 기존의 체제를 비판하고 도전하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측면이 있다”(Oh 1990, 311-312)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베버는 어느 하나가 일방적으로 현실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 상호 영향관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베버는 뒤르켐과 함께 종교의 기능과 운명에 대해 설명하면서 ‘세속화 이론’의 토대를 만든 인물이다. 이 세속화 이론은 근대화가 강화될수록 세속화는 증대되고 그와 동시에 전통 종교는 점점 사적 영역에서만 작동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종교의 운명을 암울하게 보았다. 자연과학과 기술발전이 야기한 근대화의 물결로 인해 초자연적이고 비합리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종교가 사회 내에서 소외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세속화 이론은 전 세계가 근대화 물결에 휩쓸리기 시작한 1950년대부터 전 학문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 1980년대 인간 이성의 비합리적 측면을 강조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부상과 세계적으로 나타난 종교의 부흥, 즉 ‘종교의 귀환’ 현상은 이 이론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대표적으로 세속화 이론을 주장하던 피터 버거(Peter L. Berger)까지도 세속화 현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흐름을 거스르는 ‘반세속화’ 현상이 존재함을 인정했다(Song 2019). 이것은 우리가 세속화된 세계와 반세속화된 세계가 공존하는 현실에서 살고 있다는 의미이다. 종교는 근대화로 인해 소멸되거나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와 정치의 관계는 고대로부터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동서고금을 통해 제정일치 사회가 오랫동안 존재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종교와 정치 사이에 협조, 비판, 대립 혹은 갈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종교와 정치는 서로 간섭하고 이해가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레비인은 정치가 인간 삶과 공동체에 형태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종교는 인간 존재에 대한 가치와 상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호 중첩된다는 점과, 각각의 목표나 구조에 있어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Levine 1981, 6).

브루노는 정치와 종교, 국가와 교회 관계를 교회의 자율성이 큰 경우와 가장 작은 경우를 통해 분석했다. 그는 목표와 구조가 완전히 동일한 연합, 분리되었지만 때때로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협동, 상이한 전략과 분리된 구조를 갖지만 유사한 목표를 추구하는 경쟁, 다른 구조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가 적대적인 갈등 등의 4가지 관계로 나누어 분류했다(Bruneau 1974, 5).

이론적 측면에서 1980년대 이후 의미 있는 변화는 라틴아메리카 종교학자나 사회학자들에 의해 정치와 종교 문제에 대한 독창적인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신들의 전쟁: 라틴아메리카 종교와 정치』를 쓴 브라질

출신 학자 미카엘 뢰비(Michael Löwy 1999)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남미와 중미에서 태동한 해방을 지향하는 그리스도교인들(*el cristianismo liberacionista*)의 활동과 해방신학을 통해 이 대륙의 정치와 종교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오토 마두로(Otto Maduro)는 1980년 출간한 『종교와 사회적 갈등』에서 마르크스 이론을 변형하여 적용했다. 종교에 있는 유기적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그람시의 이론을 통해 종교를 분석하는 독창성을 보였으며, 라틴아메리카에서 종교는 사회분쟁의 요소라는 점을 계급 갈등과 연결시켰다.

199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개신교의 교세가 확장되고 정치 참여 현상이 증가하자 이 종교에 대한 정치적 위상과 존재감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중미와 브라질, 칠레 등에서 급격한 종교지형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러한 새로운 현실은 더욱 깊이 있는 이론적 분석을 요구했다. 신도 수의 증가 이유, 개신교 내 다양한 신학이나 이념 변화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페루 내에서 개신교의 정치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 개신교의 정치 참여를 연구한 페레스 과달루페는 이 분야의 대표적인 이론가이다. 그는 최근 라틴아메리카 대륙 차원에서 일어나는 복음주의 개신교 노선의 부상과 정치와의 관계를 분석한 뒤 개신교 정치 참여의 세 가지 유형, 혹은 모델을 제시했다. 하나는 복음주의 노선의 정당(*el partido evangélico*) 설립을 통한 영향력 확대 유형, 두 번째는 복음주의 노선의 선거 연대(*el frente evangélico*) 유형, 마지막은 복음주의 파벌(*la facción evangélica*) 유형이다. 마지막 유형은 현재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정치 참여 형태이다. 복음주의 신도들이나 성직자가 기존 정당 내에 편입되어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개신교 복음주의가 정당 내에서 파벌을 만들기는 했으나 지도력이나 주도적 영향력은 아직 행사하지 못하는 단계이다(Pérez Guadalupe 2017, 206-212).

한때 라틴아메리카에서 정치와 종교 간의 문제가 국가와 가톨릭교회와의 관계 문제로만 국한됐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개신교의 부상과 그에 따른 정치, 사회적 영향력의 확대로 인해 더욱 역동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연구의 스펙트럼도 다양해지고 있다.

멕시코 내 ‘세속국가’(estado laico) 전통

1821년 멕시코의 독립은 국가와 교회 관계에 변화를 초래했다. 독립의 영웅 아우구스틴 데 이투르비데(Augustín de Iturbide)는 아우구스토 1세라는 이름으로 황제로 즉위했다. 그는 가톨릭을 보호하고 유지한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타종교에 대한 관용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멕시코의 정세는 식민시기 약 삼백년 간 가톨릭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했던 ‘파트로나토’(patronato) 체제를 흔들었다.³

멕시코에서 19세기는 위기와 내부 대립, 혼란과 논쟁이 상존하던 시기이다. 이런 분쟁과 갈등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다. 서구 유럽의 영향으로 멕시코에도 자유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정치가들이 늘어났다. 자유주의자들은 당시 급속한 발전을 이룬 미국의 경제성장과 정치제도에 매력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미국 정신이 녹아있는 종교 이념을 대표하는 개신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이것은 라틴문화와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멕시코의 민족 정체성까지 희생하여 미국화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식민시기 봉건 체제와 보수주의 및 과거를 상징하는 가톨릭교회보다는 종교적으로는 개신교 이념을 원했던 것이다. 이것은 부르주아로 대표되는 산업자본주의와 연결된 개신교를 보다 진보한 종교로 여겼기 때문이다(Bastían 1981, 1948-1949). 새롭게 부상하는 자유주의 노선의 자본주의와 개신교를 상호 연결된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따라서 베니토 후아레스(Benito Juárez), 레르도 데 테하다(Lerdo de Tejada)와 같은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의 직접적인 적대세력인 보수주의자들 뿐 아니라 그 세력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하는 가톨릭교회를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자유주의자들이 궁극적으로 원한 것은 성직자들의 특권을 없애고 교회를 국가에 종속시키는 것이었으므로 이들은 가톨릭교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특권을 제거하려 하였다.

세속국가 체제는 베니토 후아레스가 권력을 잡으면서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857년 헌법과 그 뒤에 입법화된 레르도 법(La Ley Lerdo)이 적용되면서

3 ‘patrono’는 보호자, 혹은 후원자를 뜻한다. 스페인 왕들은 교황으로부터 교회의 수호자로 십일조의 권리, 주교와 사제 임명권, 교회 문서에 대한 승인권, 교회 간 분쟁에 개한 개입권을 가졌다. 그러나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교황의 절대적 권리가 왕권과 공존하는 상황에서 국가와 교회의 결합은 어느 정도 혼란을 전제하고 있었다. 특히 종교적 문제가 정치적 문제와 연결된 경우에 이런 혼란은 가중되었다(Puente Lutterroth 1993, 54-55).

국가와 교회 관계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이 법들은 기존에 가톨릭교회가 누리던 정치, 경제적 특권을 박탈하는 것이었다(Gabriela Roja 2019, 2). 여기에는 교회 재산의 국유화, 국가로부터 교회의 분리, 남자 수도회의 폐쇄, 시민법상의 결혼 인정, 출생과 사망에 대한 국가 관리 강화, 모지 운영권의 국가 귀속, 종교 축제 축소, 종교 예배의 자유 등이 포함되었다(Delgado Molina 2019, 3). 자유주의자들의 이런 정책은 가까운 미래에 장로교, 침례교, 나사렛교 등의 개신교들이 멕시코로 유입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자유주의자들이 예배의 자유를 강조한 의도는 가톨릭의 영향을 약화시키는데 개신교의 교리나 이념이 유용했기 때문이다(Rivera Farfán 2009, 280-281).

19세기 말경에 미국 내 개신교 선교사들이 몬테레이를 중심으로 북부지역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멕시코 내 개신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Delgado Molina 2019, 3). 개혁법은 오랫동안 멕시코 내 개신교의 유입을 막았던 장벽을 제거해 버렸다. 하지만 실증주의에 토대를 두고 국가를 운영한 포르피리오 디아스 정권(Porfirio Díaz, 1876-1910)은 반성직주의에 토대를 둔 개혁법 적용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덕분에 상대적으로 이 기간은 가톨릭교회에게 평화로운 시기였다. 하지만, 동시에 개신교의 유입도 막지 않았다. 산업화와 근대화 전략을 구사한 디아스는 외국 투자에 적극적이었기에 영국과 미국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되고 자본주의화가 빠르게 전개되면서 개신교의 유입도 빨라졌다. 개신교는 자본주의화를 촉진하는 프로젝트와 통합된 한 요소였다(Bastian 1981, 1953).

하지만 1910년 디아스 정권 타도를 외치며 일어난 멕시코혁명은 상황을 바꾸어 놓았다. 20세기 최초의 사회혁명은 세속국가 전통을 확고히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⁴ 혁명 세력 중에서도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노선의 카란사(Carranza)나 오브레곤(Obregon)이 승리하자 반교회, 혹은 반성직주의 사상이 다시 부상했다. 혁명을 제도화한 1917년 헌법은 가톨릭 성직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 교회의 교육기관 운영 금지와 재산 소유 제한, 수도원 등 교회의 부속시설 신설 금지, 공공장소에서 공개 종교행사 제한 등의 금지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었다.⁵

4 세속국가 전통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전제로 종교를 믿을지 안 믿을지 개인의 자유에 맡기고 존중한다. 따라서 신도나 무신론자 혹은 불가지론자도 같은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국가는 그 어떤 종교나 신앙에 호의적이거나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고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엘리아스 카예스(Elías Calles) 대통령은 헌법이 명시한 조항들과 일부 법령들을 추가해서 1926년 법을 시행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강력한 법령의 제정과 적용은 가톨릭 신도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신도들은 무기를 들고 봉기했다. 가톨릭교회와 혁명정부 사이의 전쟁은 먼저 할리스코 주에서 시작되었지만 일찍부터 가톨릭 전통이 강한 멕시코 중부지역 전체로 확대되었다. 전 국토의 절반 이상이 종교전쟁 성격의 내전에 휘말렸다. 이 ‘크리스테로스 전쟁’(la guerra cristera)은 1926에서 1929년까지 지속되었다. 25만 명의 사망자를 낳은 이 전쟁은 멕시코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⁶ 미국의 모로(Dwight Morrow) 대사가 양측을 중재했고, 양측은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라는 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전쟁은 종식되었다. 이 전쟁은 혁명 후 탄생한 정부가 교회를 완전히 국가에 종속시키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조영현은 위의 협정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이 협정서는 가톨릭교회보다 정부 측에 유리하게 작성되었다. 이 협정은 무장봉기자들의 사면권과 일부 교회 건물들의 반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기존 헌법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정부는 교묘하게 반가톨릭 법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단지 법 적용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Jo 2009, 27).

가톨릭교회는 정치적 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법적으로도 공개적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 전쟁을 지켜본 비가톨릭 종교단체들의 활동도 위축되었다. 개신교의 종교 활동 자체도 익명성 속에서 비합법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기는 마찬가지였다(Delgado Molina 2019, 3). 푸엔테 루테로는 신자들이나 교계 성직자들이 법령의 폐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크리스테로스 전쟁은 국가가 상위를 점하는 관계를 고착화시켰다고 평가했다(Puente Lutterroth 1993, 155-168). 이후 가톨릭교회의 활동은 제약을 받았고, 정치적 영역에서 존재감이 약화되었다.

5 이 헌법은 교회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급진적인 것이었다. 사실상 혁명세력은 개인의 의식과 가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톨릭교회가 외세인 교황청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절대자를 숭배하기 때문에 지상의 권력들을 상대화시키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약화시킨다고 본 것이다(Ceballos Ramírez 2012, 43; Miguel Romero 2006, 549).

6 협정이 체결된 뒤로도 이 전쟁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부군의 보복이 계속되자 두 번째 반란이 다시 일어났다.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게릴라전 형태로 3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다. ‘라 세군다’(la segunda)로 불린 2차 전쟁은 1932년부터 1939년까지 계속되었다.

관계의 변화는 1988년 살리나스 고르타리(Salinas Gortari)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국가와 교회가 보였던 과거의 경쟁의식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국민 통합과 국가의 현대화를 위해 교회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교황청을 방문한 멕시코 주교들 앞에서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멕시코 정부가 “(가톨릭 교회들) 이상하게 보거나 마치 대립하고 투쟁해야하는 적으로 간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좋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드는 연대세력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Miguel Romero 2006, 47에서 재인용)라고 관계 개선을 독려했다. 1992년 가톨릭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에 대한 법적 인정이 이루어졌고, 헌법의 조항들도 개정되었다. 어떤 종교도 다른 종교 위에 있을 수 없고 평등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종교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되었고 공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성직자들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었다.⁷

살리나스 대통령과 제도혁명당의 태도 변화로 인해 가톨릭교회는 제도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가톨릭교회만 누리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종교 조직, 특히 개신교의 상황도 개선되었다. 멕시코 내에서 소수종교의 입장이었던 개신교들은 세속적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꺼려했지만 1992년 이후 정부에 대해 자신들도 존재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부의 대화 상대자로 인정받고 싶다는 점을 표출한 것이다. 2000년 선거에서 복음주의 교회들은 적극적인 참여 행동을 보였고, 이때부터 멕시코에서는 ‘복음주의 표’(voto evangélico)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인은 그리스도교인에게 투표한다”는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Gabriela Roja 2019, 8). 그동안 복음주의 교회가 정치적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수동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점에서 보면 전향적인 변화를 보인 것이다. 멕시코 내 복음주의 개신교도 신도가 증가하면서 서서히 국가와 직접적인 대화 상대자의 위상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7 단지 공직에 대한 피선거권만이 일정부분 제한을 받았다. 선출직에 나가고자 하는 성직자는 선거일 5년 전에 성직자 신분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사회만남당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정치 역정과 종교

2018년 12월 대통령에 취임한 타바스코 주 출신의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멕시코 정치사에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술한 정치적 탄압과 견제 속에서도 불사조처럼 부활하여 최초로 좌파세력에게 대선 승리를 안긴 인물이다.⁸ 2018년 대선은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국가재건운동당의 압승이었다. 일명 ‘암로 바람’(el viento de AMLO)이 분 것이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과나후아토를 제외한 전국 31개 주에서 이겼다. 유권자의 53%가 그를 지지한 것이다.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정치 역정은 처음 제도혁명당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제도혁명당이 70년대 경제위기를 겪고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점차 우파적 노선으로 기울자 탈당하여 민주혁명당(PRD)을 창당했다. 당내 주요 세력들이 신자유주의적 색깔을 띤 살리나스 고르타리를 대선후보로 지목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도 탈당의 빌미를 제공했다. 그는 2000년 선거에서 멕시코시티 시장에 당선되었다. 노령연금 지급, 장애인과 미혼모 지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학용품 지원, 소기업 자금 지원, 멕시코시립대 설립, 복층순환도로 건립 등 일반 시민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복지정책과 도시 인프라 개선을 통한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실천에 옮겼다. 임기동안 일하는 시장 이미지를 만들었고,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2006년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그는 농촌의 경제 파탄을 초래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자체를 문제 삼았다. 국가 자체의 근본적 개혁을 주장했으나 결국 1위인 펠리페 칼데론에게 0.56%의 근소한 표 차이로 패배했다. 반대파들은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당선되면 멕시코가 사회주의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며 두려움을 자극하는

8 기존의 제도혁명당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좌파와 우파의 정책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장기간 정권을 유지했다. 특히 라사로 카르데나스의 정책들에 내포된 좌파적 성격을 들어 제도혁명당을 좌파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제도혁명당은 71년간 멕시코를 통치하면서 자신의 정치 이념이 좌파라고 공식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백중국은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당선을 ‘멕시코 혁명 좌파의 복귀’로 평가했다(Back 2018). 하지만 이것은 그간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제도혁명당에서 민주혁명당, 그리고 국가재건운동당으로 새로운 정당들을 만들어 왔던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단순히 과거의 혁명 좌파의 복귀라고 보는 것은 그간의 변화된 현실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했던 좌파의 역사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으로 보인다. 볼리바르 메사도 2018년 멕시코 선거를 분석하면서 첫 번째 좌파의 승리라는 점을 강조했다(Bolivar Meza 2018, 71-72).

선거 전략을 구사했다. 2006년 선거는 정부 여당의 광범위한 선거 개입과 매표행위가 부정선거 논란을 불렀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선거에 불복하고 대항정부 구성에 나서면서 선거 무효를 주장했다. 지지세력을 중심으로 국민적 저항을 조직해 나간 것이다.

2012년 대선에서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31.6% 득표에 그치면서 1위인 페냐 니에토와 6.6% 표 차이로 패배하고 말았다. 두 차례의 대선 실패로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당내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2018년 선거에서 다시 민주혁명당 후보가 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결국 그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모험을 시도했다. 사실상 좌파 내에서는 국가재건운동당의 설립이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권력욕 때문이라는 비판이 일어났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2018년 대선에서 멕시코 내 모든 좌파와 연대하려 했다. 그러나 2017년 멕시코 주 선거에서 민주혁명당, 시민운동당(Movimiento Ciudadano)이 국가재건운동당을 지지하지 않고 끝까지 선거 과정을 완주하자 두 정당과의 좌파 연대 전략을 포기했다. 오히려 2017년 11월에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juntos haremos historia)’라는 구호 아래 노동자당 뿐만 아니라 사회만남당과 선거연대를 구축했다. 이념이 다른 보수 우파 기독교 정당과 연대하는 것을 보고 노동자당 뿐만 아니라 국가재건운동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종교를 정치에 활용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종교적인 것을 정치와 공적인 삶의 무대로 불러냈기 때문이다(Bernardo Barranco and Roberto Blancarte 2019, 9-12). 그는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성경을 인용하고 종교적 언어를 구사한 후보자였다. 그러나 자신의 종교적 성향을 분명히 밝힌 적이 없다(Gabriela Roja 2019, 3-5). 과달루페 성모 깃발을 들고 자신이 가톨릭 신도라고 한 적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자신이 개신교 신도라고 한 적도 있다. 그는 아래와 같이 말하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고수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과 삶을 추종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비천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위해 투쟁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당대의 권력가들은 그를 박해했다. 그렇다면, 나는 이런 의미에서 신도이다(*Nación* 321, 2018.10.01).

이점에 대해 텍 로페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이미지는 매우 애매모호하다(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양상을 드러낸다). 때때로 급진적인 인권의 수호자로 보였고, 경제 과두자들의 열렬한 반대자로 비춰졌다. 어떤 때는 낙태와 동성 결혼 주제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는 철저한 보수주의자의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논란이 큰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신의 입장 표명은 유보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애매모호한 입장 표명은 노동자당이나 사회만남당과의 연대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런 점은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형성된 공산주의자, 독재자, 권위주의자란 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켜주었다. ‘두려움의 캠페인’이 만들어 낸 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투표일에 그에 대한 신뢰 표명으로 나타났다(Tec-López 2018, 2).

또한 사회만남당과의 연대로 인해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진보주의자, 민주주의자, 좌파노선의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잃지 않은 채, 반종교적 이미지를 가진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 그가 다양한 종교와 자신을 연결시키는 행태는 대다수 시민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멕시코 사회에서 ‘민중 종교성’(la religiosidad popular)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마케팅처럼 보인다.⁹ 정치인으로서 득표를 위해 자신을 특정한 종교나 종파에 묶어두지 않고 다양하게 종교를 활용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일종의 종교적 측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단순히 득표를 위해서만 종교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종교의 비전과 정치의 비전을 결합시키고 있다. 인간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복지뿐 아니라 영혼의 복지도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정치가이지만 종교와 윤리 등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한다. 따라서 멕시코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종교적 비전과 도덕, 민주주의에서 찾고 있다. 그는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정치·경제적 위기, 범죄와 폭력, 부패, 불평등 앞에서 멕시코를 구원하는데 도덕 교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¹⁰ 특히 독립, 개혁, 혁명 시기를 거친 멕시코가 현재

9 대표적인 사례가 멕시코 국가 정체성의 한 요소로 인정받고 있는 과달루페 성모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한다거나 대통령 취임식에서 원주민들의 정화 의식이나 지팡이 수여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10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우리는 멕시코를 구원할 수 있다’(Vamos a poder salvar a México)는 행사를 조직했으며,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 영역에 자신이 강조한 도덕 교본을 보급하도록 요청했다. 복음주의 개신교는 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했지만 가톨릭교회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인 주교회의는 이를 거부했다.

제 4차 변혁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를 개조시키지 못하면 망국의 나락으로 빠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종교를 이용해 국가와 사회를 정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오브라도르의 반부패 관련 입안들과 공적인 삶의 도덕적 회복에 대한 약속들은 마치 역사를 치유하고 이 나라에 뒤뜰린 정치적 영혼을 정화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민중적 피로감이나 질립 앞에서, 유권자들은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선거 캠페인으로 일으킨 변화에 대해 기대하고 그 쪽에 희망을 건다(Barranco and Blancarte 2019, 123).

바랑코와 블랑카르테는 이런 식의 인식과 주장이 마치 설교나 강론을 연상시킨다고 평가한다. 이처럼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종교를 계속 정치무대로 불러내고 있다. 그러나 세속국가 전통이 강한 멕시코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많은 잠재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복음주의의 부상과 사회만남당의 정치 여정

라틴아메리카에 있어 개신교의 정치화는 각국의 정치적 상황이나 전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역사적 개신교의 경우 자유주의 이념 발전에 기여했다. 이런 교회들의 성향은 성직자와 신도들의 사회적 투신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념적으로는 진보나 온건한 좌파적 노선으로 경도되기도 했다. 반면에 오순절교 노선의 교회들은 가족을 중시하거나 성경에 더 친착한 윤리를 강조하면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Semán 2019, 14). 그러나 최근 라틴아메리카와 멕시코에서 부는 개신교의 정치화 바람은 역사적 개신교 계통이 아닌 주로 오순절 계통의 교회와 관련되어 있다. 데 라 토레와 크리스티나 구티에레스도 개신교의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 (차가운) 자유주의 형태의 개신교가 아닌 고유한 감정적 역동성을 성장시킨 교회 노선, 더 정확히는 오순절교화된 복음주의 개신교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De la Torre and Cristina Gutiérrez 2008, 385).¹¹

멕시코 내 가톨릭교회에 대한 견제와 종교적 다원주의의 확산은 오순절교의 발전과 복음주의 신도들의 증가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살리나스 대통령이

11 복음주의 유입과 관련해서 파블로 세만은 3가지 물질을 강조한다. 19세기 말 역사적 개신교의 이주, 20세기 초 미국에서 기원한 보수적이고 엄격한 복음주의, 마지막은 성령을 강조하고 일상의 축복과 가족을 강조하는 오순절교 계통의 교회의 유입이다 (Semán 2019, 4).

주도한 1992년 헌법 개정은 교황청과의 외교관계 복원과 함께 종교의 자유나 종교 다원성의 확산에도 기여했다. 장 피에르 바스티앙(1997)은 멕시코 내 복음주의 교회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이주자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현하고 그들에게 접근하는 전도활동을 펼쳤음을 지적했다. 즉, 개신교의 성장, 특히 오순절교 성향의 교회들의 팽창은 시골이나 도시 주변부 빈민들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멕시코의 경우 원주민은 대표적으로 근대화의 주변부에 위치해 있고 발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본래는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으나 현재는 쉽게 개신교도로 개종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성경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신교로의 개종이 용이하다. 오순절교 교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나 불만에 민감하여 멕시코의 취약계층 및 서민계층의 물질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도움의 손을 뻗었다. 취약계층은 이혼, 질병, 교육, 가족과 자녀문제, 경제적 어려움, 사업 실패 등으로 관심과 위로를 필요로 하지만 정부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도 활동 시에도 부유층이나 중산층보다는 서민층이나 사회적 약자 계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¹² 지역적으로도 부유한 중산층이 사는 도시보다는 농촌이나 시골을 집중적 공략했으며, 도시라 하더라도 서민이나 빈민층이 모여 사는 외곽 지역에 관심을 두었다.

사회만남당은 이념적으로 우익 가톨릭이나 보수적 복음주의 교회와 매우 유사한 입장을 드러냈다. ‘젠더 이데올로기’(la ideologia de genero)나 동성간 결혼에 반대하고,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정상 가정’만을 유일한 가정으로 인정한다. 낙태, 시험관 시술, 이혼과 안락사에 반대하며, 일반적으로 가정, 전통, 성역할과 성윤리에 있어 보수적 입장을 지지한다. 따라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통합적 성교육에 반대한다. 또한 자녀 문제에 있어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국가의 교육 의무보다 우선시한다(Delgado Molina 2019, 7). 따라서

12 멕시코에서 원주민은 주로 중부와 남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그 중 가장 빈곤하고 원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인 치아파스 주가 대표적인 선교 대상지로 부상했다. 한때 해방신학의 영향으로 가톨릭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그들을 위해 투쟁했으나 교황청과 보수주의 노선의 성직자들이 주도한 반해방신학의 흐름이 계속되자 1980년대 이후 교회 내 진보세력의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이 지역의 주요였던 사무엘 루이스(Samuel Ruiz)는 원주민들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나 점차 교회 내에서 고립되어 감에 따라 원주민에 대한 교회의 관심 또한 약화되었다.

사회만남당 소속 구성원들과 극우 가톨릭 단체들이 공동으로 동성 간 결혼, 혹은 동성 가정 내 아동 입양 반대 행진에 참여하는 것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다.

가르마 나바로는 멕시코에서 복음주의 교회들의 정치화가 라틴아메리카 다른 지역보다 늦어진 이유는 신앙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교회가 정치를 세속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치는 부패와 돈, 권력과 연결되어 있어 더럽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업은 이런 것들과 무관하다고 본 것이다 (Garma Navarro 2018, 361). 따라서 정당 창당이나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 또 다른 이유는 멕시코 사회가 갖는 세속국가 전통과 관련이 깊다. 종교의 정치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복음주의 교회의 정치 참여를 억제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파블로 세만이 강조한 것처럼 복음주의 교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멕시코에서 소외자’의 입장이었다(Semán 2019, 15). 정치적 꿈을 꾸기에는 힘이 약했던 것이다. 그러나 서민이나 빈민층에서 복음주의 신도 수의 증가는 복음주의 교회 구성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이런 상황들은 사회만남당의 출현에 바탕이 되었다.

사회만남당은 2001년부터 계획되었지만 2005년에 와서 실질적으로 구체화되었다. 처음에는 사회적 모임의 전국 정치 결사(Agrupación Política Nacional Encuentro Social)로 출발했던 이 단체의 조직화에 앞장선 것은 복음주의 노선의 교수이자 변호사인 우고 에릭 플로레스(Hugo Eric Flores)였다. 초기에는 사실상 시민단체의 성격이 강했다. 농민, 노동자, 기업인, 이민자, 장애자 그룹이 포함되긴 했으나 복음주의 교회에 속한 신도들을 주 구성원으로 하고 있었다(Garma Navarro 2018, 367). 주로 바하 칼리포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선거에 참여했는데, 2009년에는 타마울리파스, 나자릿, 치아파스 지역으로 활동영역을 넓혔다. 점차 조직이 구체화되자 2010년에는 국민행동당과 연대해서 선거에 참여하는 전략을 구사했고, 2013년에는 제도혁명당과 연대했으나 선거에서 패배했다. 바랑코와 블랑카르테는 사회만남당이 이념에 기초해 연대하기보다 정치권력 확장이라는 목적에 따라서만 야합하는 철세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다고 평가했다(Barranco and Blancarte 2019, 110).

2014년 시민사회 단체였던 ‘사회 모임’(Encuentro Social)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등록을 마치면서 전국 정당으로 전환되었다. 2015년 연방선거

에 참여하여 3.3%를 득표하면서 하원에 8명의 비례당대표 의원을 배출했다. 우고 에릭 플로레스도 이때부터 하원의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2017년 초반까지만 해도 사회만남당은 독자적인 대선후보를 내고 선거를 완주하려 했다. 쿠에르나바카 시장인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과우테목 블랑코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 했지만 블랑코가 모델로스 주지사 직에 도전하자 대안이 없어졌다. 전국적 차원에서 지명도가 낮은 우고 에릭 플로레스로는 선거에서의 승리가 불가능했다. 멕시코 내 정치적 상황이 로페스 오브라도르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사회만남당 내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높은 국가재건운동당과의 선거 연대도 가능한 선택지로 부상했다. 사회만남당은 독자 후보를 낼 것인지, 국민쇄신운동당과 연대할 것인지를 고민하다 2017년 12월 13일 로페스 오브라도르를 지지하며 국민쇄신운동당과 선거연합의 길을 선택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사회만남당의 관계 분석

개신교 신도들의 증가는 결국 멕시코 사회에서 개신교의 정치 참여를 촉진시키고 있다. 최근 멕시코 정치에서 개신교의 존재감이 급격히 상승했다. 좌파 이념 노선의 국가재건운동당과 노동자당(PT) 연합이 복음주의 교회의 한 부분에서 유래한 사회만남당과 선거를 앞두고 연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각각 우파 이념과 좌파 이념을 표방하는 정당들의 연합은 멕시코 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외형적으로 상호 모순적이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념 간 조합이 나타나자 유권자들은 당황했다(Delgado Molina 2019, 6). 전통적으로 복음주의 노선은 좌파와 불합치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기 때문이다.

국가재건운동당의 핵심 지도자인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LGBT의 권리나 낙태권을 옹호하는 진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같은 당의 지도자 중 하나인 무뇨스 레도(Muños Ledo)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지지하고 낙태를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처럼 멕시코 정치지형에서 그들의 이념은 명백히 좌파적 색깔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오브라도르의 이념적 성향과 사회만남당의 이념은 유사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대립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재건운동당 내에서도 사회만남당과 연대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국가재건운동당과 사회만남당의 선거

연합 사실을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발표하자 예상했던 논쟁이 촉발되었다. 정치라는 공적 논쟁 영역의 중심에 종교문제가 놓이게 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멕시코시티 시장 직에 있을 때 동성 간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했던 경력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이런 태도로 인해 ‘좌파 보수주의자’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사회만남당도 이념 문제에 있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념 자체는 보수 입장이 명확해 보이지만 실천 영역에서는 이런 이념적 노선이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선택이나 정책을 행동으로 옮길 때 이 당의 선택은 그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오히려 이념과 실천이 불일치함으로 인해 고위 이념 자체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사회만남당은 창당 초기에는 제도혁명당과 연대했으나 그 후 갈등이 생기자 국민행동당과 새로운 연대를 형성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가재건운동당, 노동자당과 선거 연대를 구축했다.¹³ 이러한 행동은 정당의 이념적 색깔을 무시한 채 당장의 현실적 이익만을 쫓아 연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페레스 과달루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치적 기회주의’(el oportunismo político)라고 평가했다(Pérez Guadalupe 2017, 22). 사회만남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극우에서 극좌까지를 포괄하기 때문에 정치적 실천면에서 보면 그 이념적 색깔이 불명확해진다는 비판은 타당해 보인다. 이념은 비교적 명확한데 실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상황에서는 이념이 당장의 이익에 밀리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텔가도 몰리나는 사회만남당을 과연 복음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Delgado Molina 2019, 5).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사회만남당의 선거 연합이 가능한 이유를 양측 모두 이념보다 실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정치적 기회주의가 가능한 것은 이것을 실용주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선거 연합을 결성할 때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우고 플로레스는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는 상반된 이념에 대해서는 선거 공약집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13 가르마 나바로는 복음주의 교회의 구성원들이 제도혁명당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평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이유는 가톨릭교회의 손아귀에서 국가를 벗어나게 하고, 세속국가 전통을 수립한 민족주의의 상속자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카르데나스주의(Cardenismo)를 기반으로 한 민족주의 노선의 민주혁명당에 대해서도 같은 평가를 내렸다. 반면 우파인 국민행동당에 대해서는 이 당이 가톨릭교회와 밀접한 연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복음주의 신도들은 이 정당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당의 이념이 우파 노선이라 유사하지만 그 점보다는 이 당 뒤에 어른거리는 가톨릭교회의 그림자를 더 의식한다는 것이다(Garma Navarro 2018, 364-365).

합의 사항에 서명했다(*El Pais*, 2018,07.12). 이것은 서로 대립은 피하면서 최대한 선거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렇다면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왜 사회만남당과 연대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정치평론가들은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새롭게 부상하는 복음주의 개신교 측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선택했다고 본다. 파블로 세만은 복음주의 교회의 강력한 네트워크와 증가한 신도 수가 기존 정치가들 입장에서 매력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부패한 정치를 고발하는데 정직하고 윤리적인 복음주의 신도들의 지지는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Semán* 2019, 15).

2018년 선거에서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국가재건운동당은 승리했다. 투표장에서 개신교 신도들의 표가 얼마나 로페스 오브라도르에게 갔는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대중매체에 의해 양산된 강성 이미지를 바꾸고 개신교 신도들의 표를 확보하려한 그의 전략은 사회만남당과의 연대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에서 볼리바르 메시는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사회만남당의 연대가 이념에 기초한 연대가 아니라 상호 이익을 위한 실용주의 노선의 만남이라고 평가했다(*Bolívar Meza* 2019, 72).

하지만 단순히 양측의 실용주의 노선만이 연대를 촉진시킨 것은 아니다. 두 세력 모두 가난한 사람들과 서민층에 대한 관심이 많고 사회 내 부조리와 불평등 문제 해소를 우선시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기댈 곳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복음주의 개신교는 이 계층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 왔다. 국가재건운동당이나 로페스 오브라도르도 좌파 세력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서민층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관심을 표명해왔다. 정치적 실용주의와 함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이 두 세력을 묶어주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만남당은 로페스 오브라도르와의 연대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 2018년 선거가 끝난 후 이 당은 최종적으로 멕시코 상원에서 128석 중 8석의 상원의석을 확보했고, 하원 500석 중 56개의 의석을 차지했다. 2018년 7월 선거 이전에는 상원에는 의석이 하나도 없었고 단지 하원에만 10석 있었을 뿐이었다(*El Pais*, 2018.07.12). 델가도 몰리나는 사회만남당이 정치적으로 당시 대세였던 ‘로페스 오브라도르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Delgado Molina* 2019, 6). 사회만남당 입장에서 이념은 상당히 다르지만

권력 확장 측면에서 보면 나름 성과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바라코와 블랑카르테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국가재건운동당은 좌파 정당이다. 성적 권리, 낙태 권리, 세속국가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념적으로 양측은 적과의 동거라고 느낀다. 그러나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에릭 플로레스 양측에 실용적 측면이 있다. 즉 권력 정복이라는 자신들만의 목표가 있는 것이다. 한편, 사회만남당은 국가재건운동당과의 거래에서 더 많은 정치적 성과를 얻어냈다. 남미의 다른 나라에서처럼 연방 의석과 상원 의석에서 원하는 바를 얻었다(Barranco and Blancarte 2019, 110).

사회만남당은 모렐로스 주지사 선거에서 과우테목 블랑코(Cuauhtémoc Blanco)를 내세워 승리했다. 하원에서의 의석수로 보았을 때 4번째로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했다. 이런 변화는 멕시코 정치지형을 재구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동시에 선거 결과는 이 정당의 한계 또한 드러냈다. 왜냐하면 전국 정당으로서 최소정당득표율 3%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회만남당은 대선에서 2.7%, 하원 선거에서 2.42%, 상원 선거에서 2.37%의 표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결국 각 주에서는 지역 정당으로서 이름은 유지하지만 전국 정당으로서의 위상은 상실했다(*El País*, 2018.07.12). 법적 정당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은 의회 내 그 어떤 위원회도 주재할 수 없고, 의회 예산에 의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전국 차원에서 사회만남당의 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서 지역 정당으로서 인정받고 있긴 하지만 정당으로서 중앙무대에서 자신들의 정책이나 이념을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우테목 블랑코가 주지사로 있는 모렐로스 주와 처음 사회만남당이 창설된 바하 칼리포니아 지역이 비교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선거 결과는 멕시코 복음주의 교회 신도들조차 사회만남당이나 우고 에릭 플로레스 자체를 신자 공동체를 대표하는 정당이나 지도자로 아직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Barranco and Blancarte 2019, 113). 아나 가브리엘라 로하(Ana Gabriela Roja)는 2018년 멕시코 선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멕시코에서 복음주의 신도들은 로페스 오브라도르에게 투표했다. 그러나 사회만남당에게는 표를 주지 않았다. 또한 다른 라틴아메리카의 선거 과정과는 달리 가톨릭 신도들과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투표에 참여했다(Gabriela Roja 2019, 10).

이런 결과는 멕시코에서 복음주의자들의 집단적 투표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교 정체성이 선거에서 집단적으로 정치적 정체성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복음주의 노선의 교회가 다양한 종파를 가지고 있고 가톨릭처럼 단일한 조직이 아니라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복음주의는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신학과 고유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상당히 분열되어 있고 개별 교회로서의 특성이 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맺는 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복음주의 노선의 정당 창당과 2018년 선거 과정에서 로페스 오브라도르라는 대세 정치인과 연합하는 사회만남당의 움직임에서 복음주의 개신교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멕시코에서 복음주의 이념을 반영한 정당을 창당해서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사회만남당의 연대는 기존의 인식이나 전망이 틀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복음주의 노선 교회들의 정치화가 가시화되었다는 것을 사회만남당의 결성과 활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1세기 현실을 분석하는데 있어 좌우 이념, 혹은 전통적 이념 도식이나 틀이 21세기의 급변하는 정치와 사회 현실을 설명하는데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사회만남당 양측 모두 이념보다는 현실적 이익, 즉 대통령 당선과 더 많은 득표, 정치적 영향력의 확장과 공고화라는 실용주의 노선에 더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장의 직접적인 이익은 상호 대립적인 이념을 넘어 연대를 구축하도록 자극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그리고 실패의 위험을 최소화 한다는 입장에서 실용주의는 선거나 정치 과정 속에서 대립적인 두 세력을 통합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한 것이다.

하지만 선거의 결과에 따라 전국 정당으로서의 등록을 상실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멕시코 내에서 복음주의 정당이 뿌리를 튼튼히 내리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아직 멕시코에서 복음주의

교회의 정치문화가 확고하게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거 결과를 보면 사회만남당은 아직 멕시코 내 전체 복음주의 교회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의 법률은 특정한 종교적 신앙을 토대로 정당을 설립하는 것을 쉽지 않도록 만들어 놓았다. 또한 복음주의 개신교는 아직 멕시코에서 소수 종교이다. 사회만남당은 역사가 짧은 신생 정당으로 어느 정도 주목을 끌었지만 전국적 차원의 조직화나 광범위한 지지 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까지는 나가지 못했다. 이것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달리 멕시코가 걸어온 민족주의 전통과 확고하게 자리 잡은 정교분리의 세속국가 전통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만남당은 멕시코 정치무대에서 복음주의 교회의 영향력과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었다. 가톨릭에 비해 복음주의 개신교도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지만 매우 신앙심 깊은 신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 결집력과 동원력은 상당하다. 향후 복음주의 노선의 기독교 활동은 정치적으로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참고문헌

- Baek, Jong-Guk(2018), “Mexico Obrador Daetongryeong? 89 Nyeon Maleui Jwapacongwon?(President of Mexico Obrador? Left Regime in 89 Years?),” *Kidokgyo Silcheon Undong(Cristian Ethics Practice)*, July 18, <https://cemk.org/8989/>
- Barranco, B. and R. Blancarte(2019), *AMLO y la religión. El estado laico bajo amenaza*, México: Grijalbo.
- Bastian, J.P.(1981), “Protestantismo y política en México,” *Revista Mexicana de Sociología*, Vol. 43, pp. 1947-1966.
- _____(1997), *La mutación religiosa de América Latina. Para una sociología del cambio social en la modernidad periférica*, México: FCE.
- Bolívar Meza, R.(2019), “Desdibujamiento ideológico y pragmatismo. MORENA en la coalición Juntos Haremos Historia, durante el proceso electoral de 2018,” *Revista Mexicana de Opinión Pública*, Año. 14, No. 27, julio-diciembre, pp. 61-76.
- Bruneau, T.C.(1974), *The Political Transformation of the Brazilian Catholic Church*,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eballos Ramírez, M.(2012), *La iglesia y revolución*, México: IMDOSOC y CEM.
- De la Torre, R. and G.Z. Cristina(2008), “Tendencias a la pluralidad y la diversificación del paisaje religioso en el México contemporáneo,” *Sociedade e Estado*, Vol. 23, No. 2, pp. 381-424, <http://dx.doi.org/10.1590/S0102-69922008000200007>
- Delgado Molina, C.(2019), “La irrupción evangélica en México. Entre las iglesias y la política,” *Nueva Sociedad*, No. 280, marzo-abril.
- El País*(2018), “Los evangélicos se aferran a López Obrador,” July 9, [검색일: 2020.01.20.], https://elpais.com/internacional/2018/07/09/mexico/1531161540_362658.html
- Gabriela Roja, A.(2019), “‘AMLO da demasiada entrada a los principios religiosos en política y muchos nos preguntamos si es la mejor solución’ para México,” BBC, mayo 28, <https://www.bbc.com/mundo/noticias-america-latina-48196305>
- Gama Navarro, C.(2018), “México: los Nuevos Caminos de los creyentes. Transformaciones en las posiciones políticas de las Iglesias Evangélicas, protestante y Pentecostales,” in José Luis Pérez Guadalupe and Sebastian Grundberger(eds.), *Evangélicos y poder en América Latina*, Lima: Instituto de Estudios Sociales Cristianos y Konrad Adenauer Stiftung Lima.
- Jo, Young-Hyun(2009), “Wae Mexicoeseoneun Hyeokmyeongjeongbuwa Catholic Sindodeul Saie Moksumeul Geon ‘Crysterus Jeonjaeng’i Ireonal Subakke Eopseosseulkka?(Why did the ‘Crysterus War’ take Place in Mexico between the Revolutionary Government and Catholics?),” in Gyeong-Won Jeong et al., *Jilmuneuro Pureojuneun Mexico(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Mexico)*, Seoul: Press hufs.

- Levin, D.H.(1981), *Religion and Politics in Latin America: The Catholic Church in Venezuela and Colombia*,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öwy, M.(1999), *Guerra de Dioses*, México: Siglo XXI.
- Maduro, O.(1980), *Religión y conflicto social*, México: CEE.
- Miguel Romero de Solís, J.(2006), *El agujón del espíritu. Historia contemporánea de la Iglesia en México(1892-1992)*, México: IMDOSOC.
- Nación 321(2018), “López Obrador explica por qué es cristiano y seguidor de Jesucristo,” *Nación 321*, diciembre 1, <https://www.nacion321.com/partidos/lopez-obrador-explica-por-que-es-cristiano-y-seguidor-de-jesucristo>
- Oh, Kyeong-Hwan(1990), *Jongkyosabohak(Religious Sociology)*, Seoul: Seogwangsa.
- Pérez Guadalupe, J.(2017), *Entre Dios y el Cesar. El impacto político de los evangélicos en el Perú y América Latina*, Lima: INES y Konrad Adenaur Stiftung.
- Pew Reserch Center(2014), “Religion in Latin America, Widespread Change in a Historically Catolic Region,” [검색일: 2020.01.20.], file:///C:/Users/5/Downloads/Religion%20in%20LA.pdf
- Puente Lutterroth, M.A.(1993), *Hacia una historia mínima de la Iglesia en México*, México: JUS and CEHILA.
- Rivera Farfán, C.(2009), “Id y predicad el evangelio. Difusión cristiana y recomposición del escenario religioso en Chiapas,” in Marco Estrada Saavedra(ed.), *Chiapas después de la tormenta. Estudios sobre economía, sociedad y política*,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pp. 279-309.
- Semán, P.(2019), “¿Quiénes son? ¿Por qué crecen? ¿En qué crecen? Pentecostalismo y política en América Latina,” *Nueva Sociedad*, No. 280, Abril.
- Song, Hyun-Ju(2019), “Segyejongkyoeseo Sesokhwawa Talsesokhwaui Dongsijeok jeongye(Simultaneous Development of Secularization and Desecularization in the Religious World,” *Bulkyopyeongron(Buddhist Review)*, No. 79.
- Tec-López, R.(2018), “¿Neopentecostales de izquierda? El pacto político entre AMLO y los evangélicos en México,” enero 1,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27042904_Neopentecostales_de_izquierda_El_pacto_politico_entre_AMLO_y_los_evangelicos_en_Mexico

Article Received: 2020. 01. 27.

Revised: 2020. 02. 20.

Accepted: 2020. 02. 24.